

## 『창세기 13회: 창세기 13:1-14:24』

### 1. 롯과 아브람의 헤어짐(13:1-18)

바로는 아브람을 내쫓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아브람과 롯이 부유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람을 축복했던 롯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sup>1)</sup>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벤텔과 아이 사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구원은 가나안에서 예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sup>2)</sup>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큰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는 경험을 예배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람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실제로는 잠재적으로 늘 존재하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동안 아브람이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절반만 순종합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친척인 롯은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아브람을 구별하심으로써 그의 약속을 전진시키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이미 존재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밝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좋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을 겪게 하십니다. 주님은 거짓된 평화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구원을 주십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이유는 많은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그들이 가진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13:7)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이 땅의 원주민으로서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남은 부분에서 물과 음식을 놓고 다투었을 것입니다.<sup>3)</sup> 힘이 강한 가나안 사람과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163.

2) Kenneth Mathews, 『창세기 2』, 164.

브리스 사람과는 다룰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람은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서 다룰 것이면, 다른 민족과 다투어야지... 우리끼리 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아브람은 롯에게 다음처럼 말합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13:8)

아브람은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아브람은 땅을 희생하고 있으며, 이런 아브람의 태도는 후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sup>4)</sup> 아브람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땅을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손해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헌신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작은 도우심을 받습니다. 인간의 도움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올 때, 친구들에게 먼저 양보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브람에게 선택권을 받은 롯은 땅을 선택합니다. 특히 성경은 롯이 어떻게, 어떤 땅을 선택했는지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13:10-11)

이 장면에서 에덴의 이야기가 메아리칩니다. 하와는 나무가 좋음을 보았고, 취했습니다. 그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취했습니다. 그들은 심판당합니다. 본문에서 롯은 땅이 좋음을 보았고, 취했습니다. 땅은 실제로 좋았습니다! 성경은 롯이 본 땅을 에덴, 애굽과 비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롯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sup>5)</sup> 대부분의 사람들이 롯처럼 선택할 것입니다.

3)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421.

4)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 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442.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롯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택한 영토는 가나안 경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sup>6)</sup> 롯은 이 땅을 선택함으로써 삼촌 아브람에게 약속된 땅을 물려받을 자가 되지 않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sup>7)</sup> 롯은 자신의 눈과 합리성을 따라서 선택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후에 롯의 후손인 롯의 태도와 비교됩니다. 롯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라는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 나오미를 섬깁니다.

우리 삶에 정말 큰 위기는 선택의 폭이 제한될 때가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결정, 초합리의 결정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이를 본 가롯 유다는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나!”라고 꾸짖습니다.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 하였느냐!”라고 하잖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우리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초합리의 결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결정들로만 가득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로 가득합니까?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어!”**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롯은 동쪽으로 떠났고, 아브람은 가나안에 거주했습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때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브람에게 “네 눈을 들으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은 “요단 온 들”을 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람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기를 기다렸고, 롯은 스스로 땅을 선택했습니다.<sup>8)</sup>

이 말을 듣고 아브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브람이 그의 장막을 치고, 들어가서, 거주했다”로 빠르게 이어지는 히브리어 구조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sup>9)</sup> 아브람은 애굽에서 부하게 되어 돌아왔을 때에(하지만 믿음의 삶에서 실패했을 때)

5)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444.

6) 소알은 사해의 남쪽이나 남동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7)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443.

8)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426.

예배했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좋은 땅을 빼앗겼을 때에(하지만 믿음의 삶에 성공했을 때) 예배합니다. 언약과 예배가 아브람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예배합니다.

## 2. 롯을 구하는 아브람(14:1-24)

롯은 이 이야기에서 소돔을 공격해온 왕들에게 납치당합니다. 이 납치는 아브람과의 분리가 하나님 보호와의 분리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sup>10)</sup>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14:1-2)

시날, 엘람은 큰 국가들입니다. 시날은 바벨론의 수도이고, 엘람은 페르시아의 한 지역입니다. 엘라살은 다마스쿠스, 디달은 히타이트입니다. 모두 강대국입니다. 이들에게 공격받는 다섯 왕들은 도시 국가의 왕들입니다. 모두 약소국입니다.

본래 이 다섯 왕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는 봉신들이었습니다. 요단 지역의 도시 국가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지만, 13년이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고, 14년이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이 이들을 정복하려고 찾아옵니다.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 전쟁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sup>11)</sup>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면서 남진합니다. 패배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은 키가 큰 위협적인 민족이었지만(신 2:10-12, 20-23), 누구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기지 못합니다.<sup>12)</sup> 강력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 왕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잡아갑니다.

본문은 롯이 만약 소돔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롯이 잡혀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브람은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합니다. 아브람은 318명의 훈

9) Kenneth Mathews, 『창세기 2』, 174.

10) Kenneth Mathews, 『창세기 2』, 175.

11)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441.

12)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 I』, 454.

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되찾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브람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그돌라오멜에게 패배한 고대의 민족들은 후대에 이스라엘 친족으로 대체됩니다. 에돔인은 호리인을 대체했고(36:20-21, 29-30; 신 2:12, 22), 롯의 두 아들 모압인과 암몬인은 각각 에밈인(신 2:11)과 삼숨밈인(수스인; 신 2:20)을 대체했습니다.<sup>13)</sup>

이를 고려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의 군대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욱 강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롯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롯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아브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삶에는 ‘헌신’의 개념이 있습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필기를 성실히 하는 이유가 오직 자신의 시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 친구들도 돕기 위해서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오직 자신의 삶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후자여야 합니다.

아브람이 승리를 거둔 후, 아브람에게 두 왕이 찾아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왕을 겸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다윗은 자신의 위대한 후손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좇아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 반열이 사라져야 했습니다.<sup>14)</sup>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람을 축복하고,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배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을 베푸시며 축복하시고,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십일조를 드립니다.

13) Kenneth Mathews, 『창세기 2』, 180.

14)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443.

아브람은 멜기세덱에 이어서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물품은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아브람은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sup>15)</sup> 아브람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아브람은 소돔 왕이 아브람을 부자로 만든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을 꺼렸습니다.<sup>16)</sup> 만일 아브람이 부자가 된다면, 아브람은 하나님을 그를 부자로 만드신 분이라는 명성을 얻길 원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도움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 신뢰합니다.

아브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분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세상이 주는 유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브람은 복을 주거나 복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소돔 왕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은 악인의 제안을 멀리했습니다.<sup>17)</sup>

주님이 주신 복 - 영적인 복/주님이 주신 복X - 육적인 복

이 이야기에서 교묘한 위협은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찾아옵니다. 성경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전투할 때보다 소돔 왕의 제안을 만날 때를 더욱 긴장감 있게 묘사합니다. 아브람에게 분명한 적의를 드러내는 적군이 가득한 전쟁터보다 선명한 호의를 드러내는 악인이 있는 공간이 더욱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 소돔 왕보다 의의 왕 멜기세덱을 먼저 준비하셔서 아브람의 믿음을 굳건히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악인의 제안을 함부로 수용해선 안 됩니다. 악인의 호의는 나중에 우리 삶의 덫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분별하는 힘을 예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진정한 승리를 주십니다.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노력을 늘 귀하게 여깁시다.■

1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196.

16) 히브리어로 부유하게 하다는 아세르, 십일조는 마아세르입니다. 언어유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17)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445.